

## 낭만과 생계의 바다, 제주의 맥박을 듣다

글 이영경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푸른 바다 위에 솟아난 신비로운 화산섬. 에메랄드빛 바다와 소박하면서도 광활한 오름, 어디에서든 만발한 노란 유채꽃을 만날 수 있어 4월을 대표하는 국내 관광지로 자리 잡은 제주의 바다는 여행의 낭만과 섬 여인들의 생계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리고 제주의 곳곳은, 많은 이들의 무덤이자 슬픔과 한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곳, 산방산 · 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

제주도는 상호작용하는 화산과 햇빛, 바람, 파도 등이 오랜 시간 공들여 빚은 섬이다. 수백만 년 전 제주도 일대는 점토와 모래층이 바닷물에 드러났다 잠겼다 반복되는 얇은 바다였다. 수많은 화산활동과 풍화작용이 거듭되면서 지금의 제주도가 형성된 것이 약 180만 년 전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화산활동이 처음 일어난 곳은 어디일까? 서남부 해안 지대인 용머리해안은 원시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질 명소다.

산방산 · 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평가에 맞춰 종전 코스를 정비한다. 용머리해안을 중심으로 산방연대와 산방굴사를 둘러보는 A코스(약 2 km, 1시간 30분 소요), 사계포구를 거쳐 마을 안길을 걷는 B코스(약 2.5 km, 1시간 30분 소요), 산방연대에서 황우치해변을 따라가는 C코스(약 5.7 km, 2시간 30분 소요)로 나뉜다.

용머리해안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화산이 세 번 폭발했는데, 분화구에서 터져 나온 마그마와 화산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완만한 언덕 모양 화산체인 응회관을 만들었다. 물결치듯 겹겹이 층을 이룬 지층 단면은 뜨거운 마그마와 차가운 바닷물이 만나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결과물이다. 마그마에 용해된 물질이 급속히 식으면서 모래알만 한 화산쇄설물이 형성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쌓여 이색적이고 웅장한 원시 제주의 지질층이 탄생했다.

언덕 아래 탐방 코스를 따라가면 해안가에 드러난 독특한 지층 구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그곳은 태초의 제주나 다름 없다. 가만히 귀 기울여보라. 끊임없이 철썩대는 파도가 제주도가 태동하던 때의 맥박 소리처럼 들린다.



용머리해안의 겹겹이 쌓인 지층구조가 태초의 제주를 상상하게 한다.

## 섬의 상처를 어루만지다

### \_\_\_\_\_ 제주에서 세계로 뻗어 나간 영화 '지슬'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이는 제주 4·3 평화공원 내 전시장에 있는 문구다.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9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 공항에서 4·3 희생자 유해가 처음 발굴된 건 11년 전인 2007년. 2년 동안만 380여 구가 발견되면서 제주 북부 민간인 800여 명에 대한 학살과 암매장의 실체가 50여 년 만에 드러났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도에는 '동광리 큰넓궤(동굴)'가 있다. 1948년 11월 중순, 마을사람 120여 명이 학살을 피해 숨어 지내던 동굴로, 당시 사용했던 질그릇 파편들이 아직 남아 있다. 제주 출신 오명 감독은 이를 배경으로 영화 '지슬'을 제작했다. 나쁜 조건에서도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구황 작물 감자. 지슬은 제주어로 이 감자를 뜻한다. 군인들이 굴을 발견하는 장면과 주민들이 불을 피우던 장면 등은 실제 동광리 큰넓궤에서 촬영됐으며, 영화 포스터에 나온 군인과 순덕의 대치 장면은 용눈이오름에서 촬영됐다. 한국영화 최초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깊이 있는 서사와 더불어 시적인 이미지까지, 우리 모두를 강렬하게 사로잡을 만큼 매혹적'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만장일치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아픔을 덮고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장소가 된 함덕 산책길과 함덕서우봉해변

## 비극을 잊지 않은 문학,

### \_\_\_\_\_ 제주와 '4·3문학'을 대변하는 소설 '순이 삼촌'

제주와 4·3문학을 대변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한 현기영 작가의 대표작 '순이 삼촌'은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제주에는 촌수를 따지기 쉽지 않은 친척 어른을 모두 삼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모두 삼촌이 된다. 4·3사건 이후, 경찰에 대한 심한



너른송이 기념관

너른송이 4·3기념관



기피증과 이후 신경쇠약과 환청에 시달리던 소설 속 순이 삼촌은 결국 사람들이 모두 죽어간 그곳에서 약을 먹고 자살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북촌마을 4·3길을 통하면 제주 4·3 사건 또는 4·3항쟁이라고도 불리는 제주의 아픔을 마주할 수 있다. 평화로운 마을과 트인 바다로 관광객들의 드라이브코스 자리 잡은 함덕 북촌마을은 군경에 의해 무려 400여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당했던 곳이다. 군경들은 마을 사람들을 북촌국민학교에 모아놓고, 너븐숭이와 당팻으로 차례대로 끌고 가 총을 쏘았다. '날찍한 돌밭'을 뜻하는 너븐숭이, 자연이 만드 이 너른 공간은 사람에 의해 끔찍한 학살터가 되어버렸다. 60여 년 전, 마을이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너븐숭이 기념관은 지상 1층 294㎡의 규모 속 4·3의 서글픔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 북촌리 4·3 전시관, 영상실, 묵상의 방 등으로 공간을 구성해 당시의 비극을 재현해 놓았다. 🍷



제주와 4·3문화를 대변하는  
현기영 작가의 대표 소설 '순이 삼촌'



▲ 오명 감독의 영화 '지슬'  
▶ 영화 '지슬'의 동굴 속 장면